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에 615억원 자금 푼다

4월 1일부터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온라인 접수 시작 올부터 '동행지원 협약자금' 추가... 보증료 최대 1.2% 지원

전북자치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2분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2분기 자금 총 규모는 615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원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2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 △경영안정자금 225억원 규모이다.

신청기간은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4월 22일부터 28일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

금'은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다.

각 기간동안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t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에 '전북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이 추가됐다.

이는 올해 1월 자금 확보에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기업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에 따라 신설된 자

금이다.

'동행지원 협약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하는 이자보전에 더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1.2%를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부담하고, 보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각 자금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또는 경제

통상진흥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12월 27일에 게시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 이번 자금지원으로 경영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28일,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하에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성공적 지역 발전 선도”

전개공,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개최

전북개발공사(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8일,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하에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자들의 도시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증진을 목표로 40여명의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도시재생사업 정책동향 및 관련 제도 안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등 총 3강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이 최신 도시재생 트렌드,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지식을 전달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총 4회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2회와 직무역량 특화과정 2회를 실시하여,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8일 새만금 환경생태대안지에서 관내 환경업무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올해 관내 환경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8일 새만금 환경생태대안지에서 관내 환경업무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전주지사지청, 한국환경공단(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부, 전북지역협력단), 한국환경보전원(호남지사), 국립공원공단(서부지역본부, 지리산전북사무소) 등 6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송 청장은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기관별 업무에 대하여 서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농진청, 참여자 혈중 염증지표 186.7%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체(알파바이오)와 3년간의 연구 끝에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흑삼'의 호흡기 염증 억제 효과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흑삼은 인삼을 3회 이상 찌고 건조해 만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인삼 제조 방법과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화했다.

연구진은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1일 0.5g의 흑삼 추출물과 위약(가짜 약)을 12주간 복용하게 한 뒤,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호흡기 관련 질환은 호흡기 내 만성 염증과 호흡기관 손상을 동반하며, 오래 방치하면 만성기침과 가래를 유발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

어 이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

그 결과, 흑삼 추출물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삼의 질 총점은 54.76%, △삼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 향상됐으며 △체내 염증 정도는 186.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는 호흡기 증상의 빈도, 호흡 곤란을 유발하거나, 호흡 곤란으로 제한받는 활동 정도,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장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을 사용했다. 또한, 체내 염증 개선 정도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가라앉는(침강) 속도로 평가하는 '적혈구 침강속도'로 검사했다.

정부혁신 과제인 이번 연구는 앞서 진행한 동물실험에 이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에 참여한 산업체(알파바이오) 배문형 연구소장은 "흑삼 추출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싱그린FS, 산란 성계 수출로 '글로벌 수출 선도기업' 자리매김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의 자회사인 (주)싱그린FS가 산란 성계 식품시장의 해외 판로 개척을 가속화 하며, 내수시장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혁신해 해외 수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8일 하림에 따르면, 싱그린FS는 2021년 정호석 대표이사 선임 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23년 매출 547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해외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매출의 약 54%를 해외 시장에서 거둬들

였다.

실제로 싱그린FS는 일본과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2009년 수출액 100만 불, 2012년 1000만불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수입국의 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검역 강화, AI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닭고기 수출업체 최초로 2000만불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업계 최초로 산란 성계 수출 시장에 진출한 싱그린FS는 베트남 시장을 공략했다. 동남아시아인들이 성



계의 특징인 짙은 색깔을 선호하며, 닭고기부터 닭발, 닭 내장 등 다양한 부위를 요리에 활용하는 식문화를 겨냥한 것이 잘 맞은 것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 온실·양식장 에너지저감사업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세·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각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은 농어가에 히트펌프를 도입해 기존 난방비 대비 약 70%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도내 농어가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원기준은 온실 난방방시설 국가 보조금 70~80%, 용자 10~20%, 자부담 10%이며, 양식장은 국가 보조금 80%, 자부담20%이다.

전북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20개 농어가에 1,070억원의 난방시스템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총 16지구에 72억원(온실 8지구 38억원, 수열 5지구 22억원, 스마트팜 3지구 14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



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어가의 에너지비용 등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분야 에너지를 절감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